

# MMPI多面的人性檢査, 韓國版 Wechsler知能檢査 및 로샤檢査의 臨床妥當度研究

元 鎬 澤 金 基 錫 金 光 日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金 明 正 金 二 泳 朴 瓊 吳 相 宇

(한양대) (한양대) (서울여대) (한양대)

## 要 約

이 研究에서 MMPI, KWIS, 로샤檢査 및 檢査배터리의 臨床妥當度を 알아보았고 아울러 檢査간의 同時妥當度を 알아보았다. 被驗者는 서울 시내 高等 학교 2년 재학생 165명과 漢陽大學病院 신경정신과에 입원한 청소년환자 45명이었다. 心理檢査는 碩士 이상 심리학자 8명이 실시하였고 臨床診斷은 2명의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2년이상의 정신과 專攻醫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1) MMPI와 他檢査간의 동시타당도는 무시할 만큼 낮았고 KWIS와 로샤검사간에는 유의하게 높았다. 2) 개별검사와 검사배터리간의 동시타당도는 MMPI가 0.46, KWIS가 0.84, 로샤가 0.80으로 비교적 높았다. 3) 檢査와 臨床診斷간의 타당도는 MMPI에서 0.49로 가장 낮았고, 검사배터리에서 0.74로 가장 높았다.

## I. 緒 論

近來 臨床心理學分野에선 心理診斷檢査(앞으로 檢査라 한다)를 소홀히 여기거나 批判하는 경향이 점차로 더하여왔다. 그 까닭을 Holt(1938), Garfield(1973), Korchin(1976) 등은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즉 50年代 이후 檢査배터리의 몇몇 實驗的 研究들이 그 診斷 效率性を 否定하는 結果를 報告하였고(Kostlan, 1954; Little과 Shneidman, 1959; Sines, 1959; Golden, 1964), 로샤檢査나 Wechsler 知能檢査의 診斷價値에 대해서 批判的 研究들이 發表되었으며(MeNemar, 1957; Meehl, 1959; Guertin 등, 1932, 1936; Murstein, 1965), 臨床 診斷體系의 信賴度와 妥當度の 결함이 지적되었다는 것이다(Sarbin, 1943; Ash, 1949; Hunt 등, 1953; Beck, 1932, Kanfer 등, 1965; Albee, 1970). 따라서 檢査에 투입하는 많은 時間과 費用에 비해서 그 效用가치가 미미하였고 꼭 診斷이 必要할 때는 MMPI多面的人性檢

査(앞으로 MMPI라 한다)만으로도 可能하다는 意見들이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本質의 이유 말고도 臨床心理學者들이 診斷보다 行動治療나 相談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도 檢査를 外面하게 된 主要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研究에서 MMPI, 韓國版 Wechsler 知能檢査(앞으로 KWIS라 한다) 및 로샤檢査의 臨床妥當度を 밝히고자 시도하였는지, 그 必要性을 간단히 論述하고자 한다.

우선 Holt(1968, 1978), Exner(1974), Exner와 Exner(1972) 등이 지적하듯이 종래의 檢査에 대한 비판들이 檢査方法이나 分析方法이 적절치 못했으며 그런 研究 結果에 따라서 檢査의 效率性を 否定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Weiner(1972), Rotter(1973) 등 저명한 임상심리학자들도 臨床診斷研究가 時間과 專門研究 要員, 및 經費등이 많이 요구되므로 적절한 연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檢査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改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Wade와 Baker(1977)의 조사에서 아직도 많은 臨床家들이 檢査를 使用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볼 때 檢査의 臨床研究는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精神醫學 臨床에서는 臨床診斷의 意味가 精神病理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精神藥物學의 發達로 治療를 하는데 있어서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Woodruff 등, 1974; Kendell, 1975; Kolb, 1977). 또한 診斷의 信賴度도 教育의 質을 개선하고 診斷基準를 操作的으로 定義함으로써 뚜렷하게 높이고 있다(Feighner 등, 1972; Endicott와 Spitzer, 1972; Wing, 등 1974). 따라서 診斷의 客觀的 단서가 되는 檢査의 要求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 이 研究의 자료를 모으는데 도와주신 김재환, 정방자, 남정현, 고희숙, 고복자, 김정희, 차준규, 임동수, 최정운, 전결구 선생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밖에 MMPI에 의한 診斷과 檢査배터리에 의한 診斷의 比較問題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MMPI, KWIS와 로서檢査는 精神病理를 診斷評價하는데 있어서 같은 機能을 하는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생긴다.

지금까지 精神病理行動을 記述할 때 主觀症狀(symptom)과 客觀症狀(sign)을 區分해왔다. 檢査도 이 두 種類의 症狀를 診斷評價할 때 各各 다른 檢査여야 한다는 것이다. Zubin(1950), Resenzweig(1950)는 이를 主觀檢査, 客觀檢査, 投射法檢査 등으로 區分하였고, Rapaport등(1945, 1946), Leary(1957)는 이를 心理的 水準(psychological level)이 다른 檢査로 區分하고 있다. 이들의 區分을 따른다면 MMPI와 KWIS 그리고 로서檢査는 그 診斷對象이 다르고 診斷機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檢査간의 동시 타당도는 낮을 것이고 檢査와 檢査배터리 사이의 진단타당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 檢査를 比較해 보기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臨床診斷의 信賴도를 높이기 위해 方法에 있어서 배려를 하고 MMPI, KWIS 및 로서檢査의 臨床妥當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個別檢査간의 診斷同時妥當도를 알아보고 個別檢査와 檢査배터리의 同時妥當도를 밝히고 끝으로 개별檢査와 檢査배터리에 의한 診斷의 臨床妥當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 II. 對象, 方法

### 〈被 驗 者〉

被驗者는 高等學校在學生 165명과 神經精神科에 入院治療를 받은 靑少年 45명으로 하였다. 高校生은 서울市內 남녀 人文·實業고교 각 1개교씩 4개교를 임의로 選定하였고 각 學校內에선 2學年學生만 無選標本方法으로 男 76명 女 89명을 選擇하였다.

入院患者는 漢陽大學病院 神經精神科에 入院한 靑少年患者 가운데 男 23명 女 22명을 年齡과 學歷을 고려해서 17세에서 21세까지 高校 1년 이상의 學歷을 가진 자를 임의로 선택하였다.

### 〈道 具〉

여기에 使用된 道具는 檢査道具와 臨床診斷道具로 區分된다.

檢査道具: 檢査는 MMPI(鄭範謨등, 1968) 383 問項型, KWIS(田溶新등, 1963) 및 로서檢査를 使用하였다. 各檢査에 의한 診斷基準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MMPI는 Marks와 Seeman(1963), Gilberstadt와 Duker(1965) Dahlstrom등(1972), 田溶新(1976) 등의 形態分析을 參考하였고, KWIS는 Schafer(1948), Holt(Rapa-

port등, 1968) 및 Gilbert(1978)을 참고하였으며, 로서檢査는 Schafer(1948), Piotrowski(1957) 및 Gilbert를 참고하여 각각의 진단기준을 마련하였다.

臨床診斷: 臨床診斷을 하기 위해서 Endicott와 Spitzer(1969)가 開發한 精神醫學的評價尺度(psychiatric evaluation form)와 漢陽大學病院 神經精神科에서 마련한 臨床面談記錄紙를 使用하였다. 精神醫學的評價尺度는 客觀化된 精神狀態檢査(mental status examination)로 症狀評價를 심한 정도에 따라서 5단계 評定을 하도록 고안되었으며 가능한 한 觀察된 行動을 위주로 評價토록 되어있다. 이 尺度에는 藥物濫用, 興奮, 自殺自害, 誇大妄想, 言語瓦解, 不適切行動, 幻覺등 19개 症狀尺度로 되어있다. 精神醫學的評價尺度(앞으로 P. E. F라고 한다)를 이 연구에 適用하기 위해서 症狀評價를 보다 客觀化할 수 있도록 漢陽大學病院 神經精神科에서 評價基準例를 作成하여 使用하였다<sup>1)</sup>.

### 〈方法 및 節次〉

檢査의 實施 및 診斷: 高校生에 대한 檢査는 1979년 6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學校別로 실시하였다. MMPI는 學級單位로 집단검사로 실시하였고 KWIS와 로서檢査는 8인의 임상심리학자에 의해 個人檢査로 실시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검사자는 모두 같은 臨床訓練을 받았고 2인은 임상심리전문가이고 4인은 2년 이상 臨床訓練을 받았고 나머지 2인은 1년의 訓練을 받은 자이다. 여기 1年훈련생은 KWIS검사에만 참여하였다.

入院患者는 1979년 6월 1일부터 80년 3월 30일까지 한양대병원 신경정신과에 入院했던 환자로서 대체로 入院一週이내에 個人檢査로 실시하였다. 여기 참여한 검사자는 임상심리전문가 1인, 2년 이상 訓練者 2인이었다.

檢査結果를 分析하여 診斷하는 과정에선 임상심리전문가 1인, 2년 이상 훈련자 2인이 참여하였다. 診斷方式은 3인이 210명의 검사자료를 가지고 各자 독립적으로 檢査別 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結果 3인이 일치하는 診斷은 그대로 결정하고 不一致하는것은 3인의 진단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였다. 診斷分類體系는 美國精神醫學會編 診斷統計體系 2版(A. P. A. 1968)과 3版草案(A. P. A. 1978)을 참고해서 편 의 상 神經症, 行動 및 性格障礙, 燥症, 憂鬱症, 適應障礙, 精神症 및 正常으로 區分하였다. 이중에 神經症에는 不安症, 히스테리症, 恐怖症, 強迫症 및 精神身體障礙를 포함하였고, 精神

1) 檢査의 診斷基準과 精神醫學的 評價尺度의 評價基準例는 元鎬澤(1980)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症에는 精神分裂症과 潜在性精神分裂症을 포함하였다.

臨床診斷：高校在學生의 臨床診斷은 心理檢査를 實施한 같은 기간에 精神科醫師 8인에 의하여 P. E. F.를 評價하면서 동시에 面談記錄紙를 作成하였다. 이 資料를 가지고 面談醫師와 1인의 專門醫가 檢査하여 診斷하였다. 入院患者의 診斷은 主治醫가 中心이 되는 診斷會議를 통해서 결정하였다. 高校生의 診斷의 信賴度가 문제될 것 같아서 따로 알아 보았다. 面談의사의 진단

과 專門醫가 資料만 갖고 다시 診斷해 보았는데 이들 사이의 診斷一致率이 78%였다.

資料의 整理：우선 檢査間의 診斷同時妥當度, 個別檢査와 檢査배터리간의 同時妥當度 그리고 檢査와 臨床診斷間의 妥當度를 類關係數(contingency coefficient)로 산출하였고 相關의 有意度는  $\chi^2$ 檢證을 하였다. 또한 診斷別 檢査間의 一致率은 百分率로 算出하여 比較하였다.

표 1. 檢査間 同時妥當度(類關係數 및  $\chi^2$ 值)

검 사	MMPI			KWIS			로샤검사		
	C	$\chi^2$	P	C	$\chi^2$	P	C	$\chi^2$	P
KWIS	0.43	49.41	0.07						
로샤검사	0.48	62.37	0.004	0.73	234.23	0.000			
검사배터리	0.46	56.02	0.018	0.84	485.53	0.000	0.80	384.34	0.000

자유도는 모두 36이고 C는 유관계수임.

### III. 結 果

#### 1. 檢査間 同時妥當度

MMPI, KWIS 및 로샤검査의 診斷機能의 差異와 個別檢査와 檢査배터리간의 診斷一致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檢査間 同時妥當도와 診斷詳別로 診斷一致率을 算

出하였다.

표 1은 檢査間 同時妥當도를 類關係數(C로 표현한다)와 相關의 有意도를  $\chi^2$ 值로 나타낸 것이다. 이 結果를 보면 MMPI와 다른檢査 및 檢査배터리간의 동시타당도가 모두 낮았다. 특히 MMPI와 KWIS 간에는 C값이 0.43으로  $\chi^2$ 檢證에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가. 檢査間 診斷一致率

진 단 별	정상 사례(%)	신경증 사례(%)	행동성격장애 사례(%)	우울증 사례(%)	조증 사례(%)	정신증 사례(%)	적응장애 사례(%)	전체 사례(%)	이상집단 사례(%)
MMPI사례수	149	13	10	4	8	13	13	210	61
KWIS일치율	93(62)	0(0)	0(0)	0(0)	0(0)	4(30)	0(0)	97(46)	4(7)
로샤검사일치율	85(58)	0(0)	2(20)	0(0)	0(0)	7**(54)	3(24)	97(46)	12*(20)
로샤 사례수	108	14	34	1	2	27	24	210	102
KWIS일치율	81**(75)	2(14)	8**(24)	0(0)	1(50)	19**(70)	4(17)	115(55)	34**(33)

표 2-나. 檢査間 診斷一致率(檢査 배터리에 대해서)

진 단 별	정상 사례(%)	신경증 사례(%)	행동성격장애 사례(%)	우울증 사례(%)	조증 사례(%)	정신증 사례(%)	적응장애 사례(%)	전체 사례(%)	이상집단 사례(%)
검사배터리사례수	98	16	44	1	1	24	26	210	112
MMPI일치율	84**(86)	2(13)	3(7)	0(0)	0(0)	5*(21)	5*(19)	99(47)	15**(13)
KWIS일치율	87**(89)	8*(50)	13**(30)	1(100)	1(100)	19**(79)	7**(27)	136(65)	49**(44)
로샤검사일치율	83**(85)	7**(44)	22**(50)	0(0)	1(100)	20**(83)	12(46)	145(69)	62**(55)

檢査간에 무관하더라도 이론상 일치할 수 있는 빈도뿐 이론빈도로 하여  $\chi^2$ 檢證을 시행함.

\* $p < 0.05$ 수준 \*\* $p < 0.01$ 수준

KWIS와 로샤檢査간에는 C값이 0.73이고 KWIS와 검사배터리간 그리고 로샤檢査와 檢査배터리간에는 C값이 각각 0.84, 0.80으로 뚜렷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MMPI와 KWIS나 로샤檢査간에는 診斷機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統計的 意義는 밝히지 못했지만 檢査간 동시타당도에 비해 檢査와 검사배터리간의 타당도가 一貫性있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다음엔 각 검사가 診斷群에 따라서 診斷機能의 差異가 있는지를 진단일치율로 알아보았다. 우선 診斷群別 MMPI의 診斷事例에 대한 KWIS와 로샤檢査의 진단일치율을 알아보았고 다음에 로샤檢査의 진단사례수에 대한 MMPI의 진단일치율을 알아보았으며 끝으로 檢査배터리에 의한 診斷事例數에 대해서 각 檢査의 진단일치율을 診斷群別로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의 가, 나와 같다.

여기에서 MMPI진단에 대한 KWIS의 진단일치율을 보면 正常群이 62% 정신중군이 30%로 높은듯이 보이니 理論上의 예상일치율과 비교해서 意味가 없었다. MMPI와 로샤검사의 진단일치율은 정신중에서 54%로 의미있는 일치율을 나타냈다. 로샤검사와 KWIS의 일치율은 正常群에서 75%, 行動 및 性格障礙群에서 24%, 정신중에서 70%로 유의한 일치율을 보였다.

표 3. 檢査의 臨床診斷度(類關係數,  $\chi^2$ 值)

검 사	임 상 진 단		
	C	$\chi^2$	P
MMPI	0.49	64.72	0.0023
KWIS	0.65	154.68	0.0000
로샤검사	0.65	156.03	0.0000
검사배터리	0.73	242.95	0.0000

자유도는 모두 36이고 C는 유관계수임.

표 4. 臨床診斷別 檢査의 診斷一致率

임상진단별	정상 사례 (%)	신경증 사례 (%)	행동, 성격장애 사례 (%)	우울증 사례 (%)	조증 사례 (%)	정신증 사례 (%)	적응장애 사례 (%)	전체 사례 (%)	이상점단 사례 (%)
진단사례수	120	9	39	5	4	25	8	210	90
MMPI일치율	*99**(83)	0(0)	5*(13)	1(20)	1(25)	4(16)	1(13)	111(53)	13**(13)
KWIS일치율	84*(70)	2(22)	7(18)	0(0)	1(25)	13**(52)	1(13)	108(51)	24**(27)
로샤검사일치율	84**(70)	3*(33)	14**(36)	0(0)	1(25)	15**(60)	1(13)	118(56)	34**(38)
검사배터리일치율	81**(68)	3*(33)	24**(62)	0(0)	1(25)	15**(60)	2(25)	126(60)	45**(50)

\*: 檢査와 臨床診斷간에 無關하더라도 診斷사례수에 따라 일치할 수 있는 수를 이론빈도로 하고 實 사례 수 사이의  $\chi^2$ 검증을 실시함. \*는  $p < 0.05$  \*\*는  $p < 0.01$ 의 의의를 나타냄.

다. 따라서 KWIS와 로샤檢査간에는 진단군에 따라서 유의한 일치율을 보였으나 MMPI와 KWIS간 또는 MMPI와 로샤檢査간에는 거의 의미있는 일치율을 나타내지 않았다.

檢査間의 진단일치율이 낮는데 반해서 個別檢査와 검사배터리간에는 진단일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MMPI와 검사배터리간에는 정상군에서 86%, 정신중에서 21% 그리고 적응장애에서 19%로서 유의한 일치율을 보였다. KWIS와 로샤檢査는 事例數가 아주 적은 우울증군과 조증군을 제외한다면 모든 진단군에서 檢査배터리와 높은 일치율을 나타냈다.

## 2. 檢査와 臨床診斷間의 妥當度

個別檢査 및 檢査배터리와 臨床診斷간의 타당도를 유관계수로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여기서 보면 MMPI의 임상진단 타당도가 0.49이고 KWIS와 로샤검사가 똑같이 0.65를 나타냈고 검사배터리가 0.73으로 모두 有意한 상관을 보였다. 이렇게 볼때 예상했던 대로 검사배터리가 진단예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도 臨床診斷에 대해서 診斷群別檢査의 診斷一致率을 알아보았다.

表 4에서 보면 正常群에 대한 진단일치율은 개별검사와 검사배터리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구해진 일치율로만 보면 MMPI가 가장 높지만 이론적 일치율을 고려하면 검사배터리의 일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各 臨床群에서는 檢査에 따라서 差異가 심한것을 볼 수 있다. 神經症群은 로샤檢査와 검사배터리가 有意한 一致率을 나타냈고, 행동 및 성격장애군에서는 MMPI, 로샤검사 그리고 검사배터리가 유의한 일치율을 보였다. 우울증과 조증은 사례수가 적어서 일치율을 따지기 어렵지만 MMPI가 다른 검사에 비해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고 정신중군에서는 KWIS, 로샤검사 및 검사배터리가 뚜렷한 일치율을 나타냈다.

正常群을 제외한 臨床集團의 진단일치율을 보면 MM

PI가 13%, KWIS가 27%, 로샤檢査가 38%, 검사배터리가 50%로 檢査배터리가 個別檢査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또한 MMPI의 진단일치율이 예상밖으로 낮았다.

#### IV. 論 議

이 研究에서 MMPI, KWIS, 로샤檢査 및 검사배터리의 臨床妥當度를 알아보았는데 예상하였던대로 檢査간의 同時妥當度는 낮았거나 MMPI와 KWIS에서처럼 無關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별검사와 검사배터리간의 타당도 계수는 검사간의 경우에 비해서 일관성있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임상진단 준거에 대한 각 檢査의 진단타당도는 모두 유의한 상관율 나타냈는데 그중에서도 검사배터리가 뚜렷하게 높은 상관율을 보였다. 특히 正常群을 제외한 臨床群에 대한 診斷一致率에서는 검사배터리의 효율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결과를 얻었고, 통상적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MMPI의 진단효율성이 가장 낮은 결과를 얻었다.

이와같은 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들을 檢討하고자 한다.

우선 臨床診斷妥當度를 밝히면서 高等學校在學生을 被驗者로 選擇한데 대하여 해명해야 할 것 같다. 사실이 研究에서 신경증, 우울증, 조증 및 적응장애는 진단 사례가 너무 적어서 진단일치율을 알아보는데 미진했던 것은 틀림없다. 이와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高校在學生을 피험자로 선택한 것은 임상적 편견을 가능한 한 통제하고 심리검사에 의한 판단과 임상진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즉, 精神科入院患者만을 被驗者로 할 경우 診斷을 할때 檢査나 客觀的 臨床評價方法 이외에 다른 雜音要因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보다 높고, 뿐만아니라 心理學者나 精神科醫師가 상대방의 진단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다음 檢査간의 同時妥當度가 낮았던 결과를 문제시할 수 있다. 특히 MMPI와 KWIS 또는 로샤檢査간에 상관성이 낮았던 결과와 檢査의 評價機能과 연관이어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Rapaport등(1945, 1946), Zubin(1950) 및 Rosenzweig(1950)등이 임상적 경험이나 理論的 分析을 통해서 自覺行動과 客觀的으로 觀察可能行動을 區分하고 이 行動을 評價하는 檢査가 각각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Leary(1957)는 心理水準을 自覺水準, 觀察行動水準 및 無意識水準등으로 區分하고 自覺水準은 自己報告型檢査에 의하여, 觀察行動水準은 觀察者나 또는 일부투사법검사에 의하여 評價가 가능함을 입

증하였는데, 이렇게 볼때 MMPI와 KWIS 또는 로샤檢査간에 타당도가 낮았던 것은 서로 評價機能이 다른 檢査에서 볼 수 있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즉 MMPI는 주관증상을 평가하는 검사이고 KWIS나 로샤檢査는 객관증상을 평가하는 檢査이므로 서로간의 타당도가 낮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가지 더 언급하면 이 연구가 한 부분이었다던 본 연구자의 연구(원호택, 1980)에서 主觀症狀준거와 客觀症狀준거를 구분해서 MMPI와 KWIS의 準據妥當度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MMPI는 주관증상준거에 대해서 그리고 KWIS는 客觀症狀준거에 대해서만 유의한 타당도를 보였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檢査의 評價能力을 向上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집중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엔 臨床診斷에 대해서 個別檢査보다 檢査배터리가 유의하게 높은 妥當度를 보였는데 이 결과는 臨床場面에선 쉽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지만 嚴格한 실험 설계에 의해서 연구된 몇몇 先行 研究와 相反되는 報告라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Sines(1959) Golden(1964)의 연구에선 검사배터리에 의한 豫言이 MMPI 단독檢査에 의한 예언보다 더 낮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를 보면 事例數가 5인~6인이며 評價行動變數가 Sines의 경우 97항목이고 Golden의 경우 100항목으로, 통계적으로 볼때 방법상에 타당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準據行動 評價가 面談자료에 치우치고 있어서 MMPI의 타당도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被驗事例數를 210명으로 하였고 臨床診斷을 결정하기 위해서 客觀的 資料와 面談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評價變數를 10項目미만으로 줄임으로써 臨床的 豫言力을 높였던 점이 先行 研究들과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方法上의 差異가 相反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 타당도가 높았던 또 다른 이유는 검사자들이 모두 같은 진단평가 훈련을 받았고, 검사자나 臨床醫師가 같은 臨床的 條件에서 훈련받았으므로 Hordern(1968), Sandifer등(1964, 1968)이 보고했듯이 診斷信賴度를 높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타당도가 높아졌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겠다.

끝으로 臨床實際와 관련해서 한가지 문제를 더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 MMPI가 검사배터리에 대해서도 타당도가 낮고 臨床診斷과의 妥當度 역시 다른 어느검사에서도 보다도 낮았던 결과를 60年代이후 MMPI를 臨床評價道具로 好選하는 추세와 관련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Garfield(1973), Wade와 Baker(1977) 등은 檢査배터리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데 비하여 診斷효율성이 낮다는 의견이 臨床心理學者들 사이에 지배적이어서 診斷評價를 위해서 MMPI를 好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MMPI檢査가 客觀性이 있고 專門家의 時間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診斷評價의 效率性이 있는나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 연구에서는 診斷效率性이 다른 검사에 비하여 가장 낮았다. 金중술(1970) 元호백(1970) 등의 연구에서도 MMPI의 妥當度의 結論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金중술은 MMPI의 妥當度의 結論을 다른 檢査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밝히고 있다. 앞에서 論議했듯이 主觀症狀와 客觀症狀의 評價檢査가 달라야 한다면 MMPI의 評價機能은 分명한 한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뿐만아니라 이 연구결과를 받아들인다면 精神科患者의 病的行動을 診斷評價하기 위해서는 檢査배터리의 適用이 廣연히 要求된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金重述. 정신과 환자에 대한 임상심리검사의 문제점—특히 정상 MMPI 반응을 중심으로—. 카톨릭大學 醫學部 論文集, 1970, 18, 149-166.
- 元鎬澤. MMPI 精神分裂症 尺度의 妥當度 研究. 서울 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970.
- 元鎬澤. 心理診斷 檢査 배터리의 妥當度 研究—MMPI, KWIS, Rorschach 檢査를 중심으로—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1980.
- 田溶新. MMPI 檢査 解釋편람. 서울: 教育出版社. 1976.
- 田溶新, 徐鳳延, 李昌雨. KWIS 實施要綱. 서울: 中央教育研究所, 1963.
- 鄭範謨, 李定均, 陳渭教. MMPI 多面的 人性檢査 實施要綱. 서울: 코리안 테스트링 센터. 1967.
- Albee, G. W. The uncertain future of clinic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1970, 25, 1071-1080.
- Allison, J., Blatt, S. J. and Zimet, C. N. *The interpretation of psychological tests*. New York: Harper and Row, 196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2nd ed)*.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6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draft)*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78.
- Asberg, M., Ferris, C., Schalling, D. and Sedvall, G. Comprehensive psychiatric rating scale: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a psychiatric rating scal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978, Supplementum 271.
- Ash, P. The reliability of psychiatric diagnos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49, 44, 272-276.
- Beck, A. T. Reliability of psychiatric diagnoses. A critique of systematic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62, 119, 210-216.
- Dahlstrom, W. G., Welsh, G. S. and Dahlstrom, L. E. *An MMPI handbook Vol. 1: Clinical interpretation*. (Rev. 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2.
- Endicott, J. and Spitzer, R. L. What! another rating scale? The psychiatric evaluation form.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72, 154, 88-104.
- Exner, J. E.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4.
- Exner, J. E. and Exner, D. E. How clinicians use the Rorschach.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72, 36, 402-408.
- Feighner, J. P., Robins, E., Guze, S. B., Woodruff, R. A., Winoker, G. and Muncz, R. Diagnostic criteria, for use in psychiatric researc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72, 26, 57-63.
- Garfield, S. L. *Clinical psychology*. London: Edward Arnold, 1974.
- Gilberstadt, H. and Duker, J. *A handbook for clinical and actuarial MMPI interpretation*. Philadelphia: Saunders, 1965.
- Gilbert, J. *Interpreting psychological test data. Vol. 1*. New York: Van Nostrand and Reinhold, 1978.
- Golden, M. Some effects of combining psychological tests on clinical inference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64, 28, 440-446.
- Guertin, W. H., Ladd, C. E., Frank, G. H., Rabin, A. I. and Hiester, D. S. Research with the Wechsler Intelligence Scales for Adults: 1960-1965. *Psychological Bulletin*, 1966, 66, 385-409.
- Guertin, W. H., Rabin, A. I., Frank, G. H., and

- Ladd, C.E. Research with the Wechsler Intelligence Scales for Adults: 1955-1960. *Psychological Bulletin*, 1962, 59, 1-26.
- Hathaway, S.R. and McKinley, J.C. A Multiphasic Personality (Minnesota): I Construction of schedule. *Journal of Psychology*. 1940. 10. 249-254 in G.S. Welsh and W.G. Dahlstrom (Eds.) *Basic readings on the MMPI in psychology and medicin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56.
- Holt, R.R. (Rev. ed.) *Diagnostic psychological testing* by D. Rapaport, M.M. Gill and R. Schafer.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1968.
- Holt, R.R. Yet another look at clinical and statistical prediction: Or is clinical psychology worthwhile? *American Psychologist*. 1970. 25, 337-349.
- Holt, R.R. "Clinical and statistical measurement and prediction: How not to survey it's literature". In *Methods in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Plenum, 1978.
- Hordern, A., Sandifer, M.G., Green, L.M. and Tinburry, G.C. Psychiatric diagnosis: British and North American concordance and stereotypes of mental illnes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68, 114, 935-944.
- Hurvich, M. and Bellak, L.A. systematic study of ego function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69, 148, 569-585.
- Jackson, C.W. and Wobl, J. A survey of Rorschach teaching in the University.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and Personality Assessment*, 1966, 30, 115-134.
- Kanfer, F.H., Saslow, G., and Ore, P. Behavioral analysis; An alternative to diagnostic classif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65, 12, 529-538.
- Katz, M.M., Cole, J.O. and Lowery, H.A. Studies of the diagnostic process: The influence of symptom perception, past experience and ethnic background on diagnostic decision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69, 125, 937-947.
- Kendell, R.E. The stability of psychiatric diagnos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74, 124, 352-356.
- Kendell, R.E. *The role of diagnosis in psychiatry*. London: Blackwell Scientific, 1975.
- Kolb, L.C. *Modern clinical psychiatry* (9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1977.
- Krchin, S.J. *Modern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Basic Books, 1976.
- Kostlan, A. A method for the study of psychodiagnosi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54, 18, 87-88.
- Leary, T.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1957.
- Little, K.B. and Shneidman, E.S. Congruencies among interpretations of psychological test and anamnestic data. *Psychological Monographs*, 1959, 73, Whole No. 476.
- Marks, P.A. and Seeman, W. *The actuarial description of personality: An atlas for use with the MMPI*. Baltimore: Williams and Wilkins, 1963.
- McNemar, Q. On WAIS difference score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57, 21, 239-240.
- Mc Reynolds, P. Introduction. In P. McReynolds (Ed.). *Advances in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4*. San Francisco: Jossey-Bass, 1977.
- Meehl, P.E. Structural and projective tests: Some common problems in validation.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 1959, 23, 268-272.
- Murstein, B.I. (Ed.) *Handbook of projective technique*. New York: Basic books, 1965.
- Nathan, P.E., Gould, C.F., Zare, N.C. and Roth, M. A systems analytic model of diagnos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69, 25, 370-375.
- Phillips, L. and Draguns, J. G. Classification of the behavior disord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1971, 22, 447-482.
- Piotrowski, Z.A. *Perceptanalysis*. New York: The MacMillan, 1957.
- Rapaport, D., Gill, M. and Schafer, R. *Diagnostic psychological testing. Vol. 1*. Chicago: Yearbook Publisher, 1945.
- Rapaport, D., Gill, M.M. and Schafer, R. *Diagnostic psychological testing. Vol. II*. Chicago: Yearbook Publisher, 1946.
- Rosenzweig, S. Levels of behavior in psychodiagno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icture-frustration stud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 1950, 20, 63-72.
- Rotter, J.B. The future of clinical psyc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3, 40, 313-321.
- Sandifer, M.G., Hordern, A., Timbury, G.C. and Green C.M. Psychiatric diagnosis: A comparative study in North Carolina, London and Glasgow.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68, 114, 1-9.
- Sarbin, T.R. A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actuarial and individual methods of predi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43, 48, 593-602, quoted in S.J. Korchin, *Modern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Basic Books, 1976.
- Sawyer, J. Measurement and prediction, clin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ical Bulletin*, 1966, 66, 178-200.
- Schafer, R. *Clinical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est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1948.
- Sines, L.K.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four kinds of data to accuracy in personality assessmen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59, 23, 483-492.
- Spitzer, R.L., Endicott, J. and Cohen, G. *Psychiatric Evaluation Form: Manual of instruction*. New York: Evaluation section, biometrics research,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ental hygiene, 1969.
- Wade, T.C. and Baker, T.B. Opinions and use of psychological tests, A survey of clinical psychologists. *American Psychologist*, 1977, 32, 874-882.
- Wechsler, D. *The measurement and appraisal of adult intelligence (4th ed.)*. Baltimore: The Williams and Wilkins, 1958.
- Weiner, I.B. Does psychodiagnosis have a fu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72, 36, 534-546.
- Wing, J.K., Cooper, J.E. and Sartorius, N. *The Measurement and classification of psychiatric sympto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 Woodruff, R.A., Goodwin, D.W. and Guye, S.B. *Psychiatric Diagnosi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Zubin, J. Test construction and methodology. In R. E. Harris, J.G. Millers, G.A. Muench, L.J. Stone, H.L. Tenber and J. Zubin(Eds), *Recent advances in diagnostic psychological testing*.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1950.

A Study on the Clinical Validation of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and Rorschach Test

Ho-Taek Won and Associates

####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clinical validity of MMPI, KWIS, Rorschach test and test battery consisted of these 3 tests.

The sample in this study was a group of 210 subjects, 165 high school sophomores in Seoul area and 45 adolescent psychiatric patients in Hanyang university hospital. Tests were administered and analyzed by 8 psychologist-2 qualified psychologists and 6 master level trainees with a minimum of 1 year psychodiagnostic training. Clinical diagnoses were performed by 7 psychiatrists-2 psychiatric specialists and 5 residents with at least 2 year residency training. In order to get validation measure, contingency coefficient was calculated and significance test was done with Chi square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1. As concurrent validities among tests, contingency coefficients of MMPI, with KWIS and Rorschach were negligibly low as 0.43 and 0.48, where as that of KWIS against Rorschach was significantly high as 0.73. In addition, those of MMPI, KWIS and Rorschach against test battery were 0.46, 0.84 and 0.8 respectively.

2. Against the criterion of clinical diagnoses, validity coefficients of MMPI, KWIS, Rorschach and test battery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high as 0.49, 0.65, 0.65 and 0.74 respectively.

From these data, it was strongly suggested that not only each test in this study possibly had a different function to contribute diagnostic judgement of test battery, but also the test battery appeared to be most effective procedure for clinical diagnosis.